

1. 한일 투자동향

- '17년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년 대비 **△47.9% 증가한 18.4억불**을 기록 (신고기준) 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8.0%)**도 전년(5.9%) 대비 증가
- JETRO통계에 의하면 '16년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는 **전년대비 29.1%가 감소** -'12년 40.0억불→'13년→33.0억불(17.5%감소/구성비 2.4%)→'14년 32.0억불 (3.0%감소/구성비 2.3%) '15년→15.2억불(52.4%감소/구성비 1.1%)→'16년 10.8억불 (29.1%감소/구성비 0.6%)

《 단위 : 억불, ()는 건수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965~2017
일본의 대한투자	45.4 (564건)	26.9 (447건)	24.9 (352건)	16.7 (314건)	12.5 (299건)	18.4 (328건)	427.4 (14,030건)
한국의 대일투자	7.4 (586건)	9.5 (645건)	5.9 (646건)	18.6 (672건)	6.3 (635건)	6.1 (638건)	105.6 (9,002건)

-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출입은행(한국의 대일투자합계는 68년~17년 통계)
- * 17년 기준, 외국의 전체 대한투자 중 일본은 미국에 이어 3위이며,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일본은 13위임
- * '17년 한국의 대일 투자는 9월말까지의 투자실적

2. 한일 교역동향

- '11,'12년도에 무역규모가 1,000억불을 넘어섰으나 '13년 이후 엔저·한일관계 영향 등으로 1,000억달러 아래로 하락 ('16년 718억 달러, '17년 820억 달러)
- 한국의 2017년 대일무역적자는 '16년동기 대비 약 52억불이 늘어난 **△283억불**을 기록
- 일본의 '17년 대세계 무역수지 : 2조6,321억엔(1월~11월) 흑자기록
-일본의 대세계 무역수지: '14년 △12조7874억엔→'15년 2조8353억엔→'16년 4조 702억엔

《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자료출처 : KOTIS 》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 체	對日	비중	전 체	對日	비중	전 체	對日
2015	526,757 (-8.0)	25,577 (-20.5)	4.9	436,499 (-16.9)	45,854 (-14.7)	10.5	90,258	△20,277
2016	495,426 (-5.9)	24,355 (-4.8)	4.9	406,193 (-6.9)	47,467 (3.5)	11.7	89,233	△23,112
2017	573,717 (15.8)	26,828 (10.2)	4.7	478,414 (17.8)	55,134 (16.2)	11.5	95,303	△28,306

- * 17년기준, 일본은 우리의 수출대상국 5위, 수입대상국 2위국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교역대상국
- * 일본에 있어 한국은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4위, 미국, 중국에 이어 제3위 교역대상국

3. 한일 간 인적교류 현황

《 단위 : 만 명, ()는 증감률(%) /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JNTO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입국자수	979.4	1,114.0	1,217.6	1,420.2	1,323.2	1,724.2	1,333.6
방한 일본인	328.9 (8.8)	351.9 (7.0)	274.8 (△21.9)	228.0 (△17.0)	183.8 (△19.4)	229.8 (25.0)	231.1 (0.6)
일본인 비중	33.6	31.6	22.6	16.1	13.9	13.3	17.3
일본 입국자수	621.9	835.8	1,036.4	1,341.3	1,973.7	2,404.0	2,869.0
방일 한국인	165.8 (△32.0)	204.4 (23.3)	245.6 (20.2)	275.5 (12.2)	400.2 (45.3)	509.0 (27.2)	714.0 (40.3)
한국인 비중	26.7	24.4	23.7	20.5	20.3	21.2	24.9
총계	494.7	556.2	520.4	503.5	584.0	738.8	945.1

- * 2017년 12월 기준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의 비중은 중국(46.8%)에 이어 2위(13.3%)